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설립 본격 추진

‘공동준비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국회·의료계 대상 설득 활동
외곽 지원 단체·유관 기관과 협력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와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체계에 착수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26일 전남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국립목포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공동준비위원회는 국립목포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전라남도가 함께 구성한 공식 조직으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과 정부·국회·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설득 활동, 외곽 지원 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담당하게 된다.

양 대학 대외협력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처장과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며, 목포시·순천시 부시장, 지역 의료기관장, 양 대학 동문회 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산하에 전문가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인 의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 국립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 전라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이상찬 대외협력부총장(목포대), 문승태 대외협력부총장(순천대), 유천 의과대학설립추진부단장(목포대), 박병희 의과대학설립추진단장(순천대)이 참석,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현안 회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출범식 세리머니에서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상생+화합’,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가 앞장선다”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출범 의지를 다졌다.

이어서 열린 공동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의대설립 추진 경과보고, 공동위원회 추가 구성과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은 인사말에서 “전남도민들은 위급한 상황에도 먼 타 지역 병원을 찾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구조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지역 중심의 의과대학 설립”이라며 “전남도민에게도 생명과 건강을 지킬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라 믿는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이 반드시 전남 통합의과대학 설립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지역 내 의료기본권과 응급의료 대응에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양 대학은 지난 2024년 11월, 전남의 화합과 미래를 위한 ‘통합의대 설립’에 합의하고, 공동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6일 전남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국립목포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통합의대 설립 의지를 다지고 있다. 〈목포대 제공〉

2024년 진행된 조선대학교 同GO同樂 디지털새싹 성과공유회. 〈조선대 제공〉

조선대, ‘디지털 새싹 사업’ 주관기관 선정

3년 연속…총 12억원 국비 지원
전국 초·중·고 대상 SW·AI 교육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올해 총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교육을 운영한다.

‘디지털새싹’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AI·SW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참여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선대는 이번 선정으로 위치스(대표 고미아), 팔칠구삼(대표 박덕화) 등과 협력해 6가지 테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총 5,000명의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학생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모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방문형 프로그램은 교사와의 사전 면담을 통해 학급별 특성에 맞춰 구성되고, 집합형 프로그램은 사전 상담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실무 책임자인 조영주 교수는 “개선된 교육 모델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이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괄 PM 변재영 교수는 “학생 중심의 실습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조선대가 전국 디지털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 AI·SW교육센터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등 연계 사업도 함께 운영하며, AI·SW 교육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민원 대응 체계 강화한다

민원대응팀 운영·교사 심리 지원 등

전남교육청이 최근 제주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애도를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교직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서 2년 전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과 교원 심리치유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러한 대책이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사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과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원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 체계를 정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은 민원전화의 교실 직접 연결 금지와 교사 개인 연락처 보호,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 필수 운영,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 등의 조치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재점검한다.

또 올해 확대된 ‘교직 스트레스로 인한 교원 심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해 특이민원 대응팀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법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원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25일(서부), 26일(동부) 양일간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연찬회 및 컨설팅’도 예정하고 있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육활동 보호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면서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AI·SW 체험축전’ 3만명 몰려

골든벨·특강·사례발표 등 다채…103개 체험 부스 인산인해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개최한 ‘2025 광주시교육청 AI·SW 체험축전’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 24~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5 광주시교육청 AI·SW 체험축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 등 3만여 명이 몰렸다.

이번 축전은 ‘미래를 여는 Code, AI’를 부제로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들이 AI·SW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AI·SW교육 체험마당, AI·SW 골든벨, AI·SW 특강, 학생 사례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축전에 앞서 개막식 축하 무대에서는 국내 최초 여성 VR 아티스트 ‘피오니’가 환상적인 VR 드로잉 퍼포먼스를 통해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창작 세계를 연출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은 ‘AI·SW교육 체험마당’이었다.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72개, 대학·기업·유관기관 31개 등 103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면서, 학생,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AI 자율주행차·코딩 드론·햄스터봇·생성형 AI 기반 미술 활동·IoT 스마트홈 등 실생활과 밀접한 AI·SW 기술을 자유롭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참여한 ‘AI?SW 골든벨’, UNIST(울산과학기술원) 박새롬 교수 특강 ‘AI가 내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초·중·고등학교 각 5팀이 참여한 ‘AI·SW 사례발표’ 등도 열리며 축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지식을 실전에서 활용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접 개발한 ‘QR코드 입장등록 시스템’을 이번 행사 현장에 도입해 관람객의 출입 편의성을 높이고 AI·SW 역량을 뽐냈다.

송정서초등학교 5학년 김하은 학생은 “로봇을 직접 코딩해서 축구 게임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며 “AI를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일상에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행사에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함께하면서 AI 교육의 대중화가 실현되는 뜻깊은 장이 됐다”며 “모든 학생이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